

## “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받았다 ”

### ■ 이종윤 원로목사

소아시아에 있던 에베소교회는 밧모섬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로 본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다.

에베소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는 거짓 교역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됨을 드러낸 교회로서 칭찬을 받았다. 악한 자들은 니골라당을 연상시킨다. 니골라는 언어학적으로 니콘(삼키는 자, 이기는 자)과 라오스(백성) 그리고 히브리어로 발라(삼킨다)와 암(백성) 즉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뜻이 있다. 우상숭배와 행음으로 백성을 삼켜 망하게 하는 이단 종파였다. 에베소교회가 정통 진리를 지키면서 이단 사이비의 비진리를 드러내는 수고를 했다고 인자되신 부활하신 주님의 칭찬의 말을 들었다.

에베소교회는 교리적 정통과 정행이 있어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린 이유로 주님의 책망을 받았다. 이는 형제사랑(Philia)을 버렸다는 수평적 사랑이 아니라 주 예수님 사랑(agape) 즉 수직적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다.

AD53년경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매일 5시에서 10시까지 요즘 시간으로 11시에서 16시까지 성경 강좌를 열었다. 점심시간을 빼고 매일 4시간씩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행 19:9-10)

1907년 평양대각성운동 당시 믿음의 선진들은 50리~70리 길을, 소에 먹을 것과 덮을 것을 싣고 걸어와 사경회에 참여했다. 평양에서 폭발된 이 회개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눈밭에서 가평에서 상량 위에서 심지어 길거리에서 통곡하며 ‘마치 지옥 뚜껑이 열린 것처럼’ 각종 죄들이 모든 사람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이 나라 전국을 불태워 ‘평양대부흥운동 - 각성운동’이 이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은 교회사에서 웨일스 성령운동과 함께 기록으로 남아 있다.

한국교회도 주님 사랑의 열도가 크게 끓어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이제 물량주의, 기복 신앙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우리도 다시 회복할 때가 되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주님을 수직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면, 이웃사랑의 수평적 사랑은 자동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다. 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주님 사랑하는 이라면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라고 하셨다. 그 열매를 영생으로 주석하는 이들이 있으나 영생은 구원받는 성도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미 주신 것이므로 여기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내세에 이기는 자 즉 회개한 자 또는 순교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급을 말한다.

그 상급을 어떻게 주어 먹을 것인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마치 복종의 생명이 이 세상을 알 수 없듯이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은 내세의 일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미래에 받을 상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되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상으로 받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한다.

-한국장로신문 [제 1550호] 2017년 5월 27일 발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부활주일 교회에서의 네 번의 예배는 총 208명의 성도가 참여하여 큰 어려움 없이 평온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강남구청도 부활주일 전날 1층 전체에 대한 방역으로 협력하여 주었고 주일 당일에도 담당 공무원이 교회에 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음을 확인한 후 감사하며 돌아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현저히 감소되고는 있지만 교회에서의 정상적인 예배가 열리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 예배를 갈망하는 여러 성도들의 요청이 있고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때를 기다리며 계속 목사, 장로와 직원 등 소수의 인원만 모이는 1부 예배만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으며 또 지난 부활주일 예배도 큰 어려움 없이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 정상적인 예배가 가능할 때까지는 지난주처럼 교회에서의 4부 예배 형태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병행하려고 합니다.

교회학교는 현재와 같이 부서 교역자의 동영상 설교 등 SNS 예배 자료를 활용한 가정예배로 대체하되, 교회에서의 부서 예배는 일반 학교의 원격수업이 정식 등교수업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고려하여 차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시 안내를 드립니다.


우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전처럼 실시간 예배 시작 5분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여 동참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처럼 1부와 3부 예배를 실시간 생방송으로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시간을 맞추어 보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접속방법은 이전처럼 아래 기재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예배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현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서울교회 당회 드림

<b>우리의 비전 (vision)</b>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규(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화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서광종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애(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미국인 노동자), 박영성(총회), / 이삭, 비스파파, 사지, 에베(인도), 스토티(인도), 필리몬 프란소아, 수레시, 수비샤, 일로롱, 비사누(인도), 보디소프, 린름, 수관준(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찬홍성일(필리핀), 이재물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 부활의 아침에 받은 위대한 메시지 ” (Great Imperatives for Easter Sunday)

■ 마 28:1-10, 16-20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동산을 찾아가던 여인들은 그 소식의 중요성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3번씩이나 말씀하셨지만(마 16, 17, 20장)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주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문이 열려있었고, 돌문 위에 있는 천사는 오라(Come), 보라(See), 가라(Go), 본 것을 전하라(Tell him what you saw)는 4가지 메시지를 여인들에게 줍니다.

1. 무덤으로 오라는 초청(Come)  
주님의 사체가 있는 무덤으로 오라심은 우선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세상적 관점에서는 합당치 않습니다. 주님의 무덤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칙령이 있고, 인봉을 찢고 무덤을 지키는 군인이 있었고 그보다 자신들의 죄가 그들이 무덤을 찾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라시는 부르심에, 시공의 부적합성을 생각하며 멀리 떠나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합니다.

2. 주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See)  
주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마침내 무덤까지 내려가셔서 그곳에 누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부활 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그가 무덤까지 내려가심을 묵상하며 자신의 삶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신으로도 살리시므로, 전 인류를 구원하시며 온전히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3.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라  
주님은 와서 보았으면 무덤 근처에서 머물며 꾸물대지 말고 빨리 가서 눈으로 본 것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확신이 없으니 꾸물거리게 됩니다. 또한 거짓과 불신이 꾸물거리게 하고 지속적인 신앙의 결여가 우리로 하여금 꾸물거리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덤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서 보고 믿었던 것들을 전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4. 전하라(Tell)  
좋은 소식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합니다. 전하지 않는 자는 좋은 소식을 진정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 28:19)고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가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너와 네 이웃에게 회복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땅 끝이란 지리적인 의미가 아닌 노약자, 장애인, 고아와 과부, 나그네(이방인) 등과 같은 소외된 자들을 의미하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임하심을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맺는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니까? 주님께서는“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 다시 사심을 증거하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복된 부활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이종윤 원로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차도훈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조원영 목사
III 오후 2시	전재홍 목사	양춘경 장로
IV 오후 4시	서명철 목사	서명철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84:10-11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8(시14)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86(86)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2부 눅 16:19-31
	3,4부 고전 1:7-11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1,2부: 죽음과 부활 사이의 중간상태	이중윤 목사
3,4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지말라!	서창원 목사
* 찬 송 Hymn	90(98)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IV 부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행제들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전 1:10)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서명철 목사

목 도 ..... 다 함 께

성 시 ..... 시 103:1-2 ..... 인 도 자

찬 송 ..... 262(196) ..... 다 함 께

기 도 ..... 가 족 중

성 경 ..... 수 2:1-7 ..... 인 도 자

설 교 ... “정탐꾼을 구해준 리합” ... 인터넷 영상

찬 송 ..... 384(434) ..... 다 함 께

주기도 ..... 다 함 께

## 수요예배

### (개 인 기 도)

##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해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

설 교 ..... 장석남 목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 회 소 식

### ◆ 알 림

####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 609호

예배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11. 이번주 심방 일정

1-2, 3-6~7, 10-5~6, 12-6, 13-9다락방

### ◆ 장 례

1. 궈 김송희 권사(5교구 유태왕 집사의 모친, 김양희 집사의 시모) / 17일(금) 별세, 20일(월) 발인

##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주일 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새벽기도
2,180명	353명	2,533명	2,273명

##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4/12)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4월12일	헌 금	85,335,380	
	예 수 금		60,391,629
	특별예배비		41,390
	교회학교운영비		1,060,860
	선 교 비		5,000,000
	출 판 비		220,000
	복리후생비		60,958,430
	통 신 비		198,810
	차량유지비		399,814
	소모품비		510,610
	잡 비		606,000
	환경유지비		56,000
	수선유지비		297,000
	식당운영비		230,660
	합 계	85,335,380	129,971,203

##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